

해남의 유의 曹澤乘·曹秉侯 父子 연구*

오준호**, 박상영***

머리말

1. 조택승 조병후의 가계
2. 조택승과 조병후의 생애

3. 조택승 조병후의 의약활동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19세기 해남 지역에서 儒醫로 활동했던 曹澤乘·曹秉侯 父子에 대한 본격적 연구의 예비 단계로, 그들의 행적에 관한 문헌 조사와 현장 답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본고는 이들의 행적을 정리하여 학계에 보고하여 이후 논의 생성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헌 창의적 해석을 통한 미래지식 보강 구축’(K1211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지면을 통해 본 연구에 사용된 사료 국역에 도움을 주신 남성우 선생님(전문역자)과 한민섭 선생님(고려대학교 한문학과), 화상에 대한 의견을 주신 이은하 선생님(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그룹

조선 말기, 특히 19세기는 한의학의 역사에서 매우 역동적인 시기였다. 東武 李濟馬(1837~1900)는 四象醫學을 탄생시켰고, 石谷 李奎峻(1855~1923)은 扶陽學說을 통해 과거의 의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들과 동시대에 살았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물로, 해남지방의 儒醫 曹澤乘이 있었다.

조택승·조병후 부자는 해남지방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昌寧曹氏 正言公派의 후손들이다. 조택승은 졸헌이라는 호를 지어 평생 인내와 겸손을 좌우명으로 삼아 왔으며 깊은 학식과 의술을 드러내지 않고 은거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유학 지식을 토대로 시문을 지으며 살아갔다. 말년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의학에 심취하여 의술을 배풀었다. 그의 醫名은 중앙에까지 알려져 말년에는 惠民院 주사에 제수되었다. 그의 시문은 그의 문집인 『졸헌집』에 남아 있으며, 그의 모습은 그의 식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최병육에 의해 그려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의 의학지식은 아들 조병후에게 이어져 『상한경험방요촬』이라는 책으로 엮어졌으며, 그 내용은 기존의 상한 치료와 구별되는 것들로서 19세기 조선 한의학의 역동적인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조병후 이외에 손봉구 역시 그의 의술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보이며, 『상한경험방요촬』 이외에 『拙軒要訣』이라는 의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인물연구, 조택승, 조병후, 『상한경험방요촬』, 전라남도, 해남.

머리말

조선 말기, 특히 19세기는 한의학의 역사에서 매우 역동적인 시기였다. 東武 李濟馬(1836~1900)는 四象醫學을 탄생시켰고, 石谷 李奎峻(1855~1923)은 扶陽學說을 통해 과거의 의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의학이론에 근거한 임상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경험적 지식을 의학이론으로 체계화하여 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반성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인 쟁점화에 그치지 않고 임상에서 실천 가능한 치법들을 창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임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方藥合編』이 나온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함경도-사상의학, 경상도-부양의학, 경기도-『방약합편』 등, 당시 새롭게 형성된 의학조류가 영향을 미쳤던 지역을 지리적으로 도식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시기에 전라도처럼 넓은 지역에서 유독 새로운 의학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아할 문제이다.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傷寒論과 그 이론에 입각한 처방을 수록한 문헌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들이 바로 본고에서 보고하고자 하는 曹澤乘·曹秉侯父子이다.

曹澤乘은 19세기 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의학인물이다. 해남 인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昌寧曹氏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儒學을 몸에 익히며 지역의 지식인으로서 지내다가 말년에 醫學에 심취하여 의술을 펼쳤다. 그의 의술은 아들 曹秉侯에게 이어져 후에 아버지와 자신의 의학경험을 『傷寒經驗方要撮』이라는 책으로 엮었는데, 이 책에는 당시의 한의학 분위기에 동참하기라도 하듯 상한 치료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들이 담겨져 있다.¹⁾

지금까지 한국의 의학인물들은 주로 소략적인 기사나 그가 남긴 의서 등 매우 제한적인 증거들에 의해 고증되어 왔다. 이는 외세의 강점과 전란 등으로 인해 많은 기억과 기록들이 단절된 탓이 크다. 이러한 면에서 보자면, 조택승·조병후 부자는 매우 다행스러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들이 남긴 의서와 문집을 통해 이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집터와 묘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을 기억하는 玄孫의 기억 역시 이들의 모습을 증언해 주고 있으며, 희귀하게도 조택승의 경우는 생전 모습이 담겨 있는 畫像까지 보존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학자로서 조택승·조병후의 생애를 현재 남아있는 기록과 사실들을 통해 정리하여 학계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전남 지역 의학 지형도 형성에 일조하고자 한다.

1. 조택승 조병후의 가계

조택승은 昌寧曹氏 正言公派로 始祖의 49世孫, 中祖인 正言公(希直)의 22世孫이다. 希直公은 고려시대 中書門下省 正六品 관직인 正言을 지냈는데, 이때에 임금에게 강력하게 충간한 것으로 인하여 珍島로 유배되었다가 이곳에 정착하였다.²⁾ 조택승의 先代는 정언공 이후, 진도와 해남 일대에서 생활해 왔으며 조선 개국 이후 중앙 관직에 뜻을

1) 오준호, 박상영, 김현구, 권오민(2012), 『조선후기 상한 연구의 일명 - 조선 후기 상한 연구서 『상한경험방요찰』의 구성과 내용』,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8권 1호, 25~34쪽.

2) “경숙이 右正言 希直을 낳았는데 임금에게 강력하게 충간했다는 이유로 남방에 귀양 갔다가 그곳에 머물러 살았다.[是生右正言諱希直, 以抗諫譴于南, 仍家焉.]” 曹澤承(1930). 『拙軒集』. 餅城閣. 9쪽 拙軒先生墓碣文」

두지 않고 대대로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曹澤承의 아버지 曹錫昌은 丙寅洋擾(1866) 때에 수군의 무기를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였고, 癸酉年(1873)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인정받아 팔순의 나이로 고종으로부터 通政大夫의 자급을 하사받고 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에 제수된다.³⁾ 조택승 역시 이때에 부친의 공훈으로 進士에 합격하였다. 한편, 조석창은 효행으로 旌閭를 하사받기도 하였다. 그는 증조모의 비석이 운반 도중 바다에 빠지자 밤낮으로 하늘에 빌었다고 한다. 그렇게 빌기를 한 달 여 만에 꿈속에서 기인이 나타나 비석을 찾아주었고 이로써 증조모의 묘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당시 조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에 감화 받은 哲宗이 旌門을 세워 표창하고 부역과 조세를 면해주었으며 당시 판서였던 鄭健朝⁴⁾로 하여금 旌孝碑文과 墓誌를 짓

3) “上皇(고종) 병인년(1866) 경기 연안에 경계령이 내려졌다. 당시 군대의 무기가 노후화되어 마침내 舟師(수군)의 진영에 나아가 외침을 방어할 방법을 의논하고, 무기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가장 먼저 나서니, 수군·육군의 장수와 사병이 모두 그 충성과 의리를 훌륭하다고 여기고, 繡衣를 입은 사신도 ‘충성을 바치고 효성을 다했다’는 칭찬이 있었다. 계유년(1873) 會圍(會試)에 성상의 은혜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상상(上庠)에 올랐는데, 당시 연세가 팔순이었다. 합격자를 호명하는 날 便殿(임금의 집무실)에 들어가 임금을 뵈었는데, 임금께서 특별히 성명과 나이를 하문하시고 과거적으로 通政大夫(3품 당상관)의 자급을 하사하고 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을 제수하셨으니, 이 분이 공의 아버님이다.[上皇丙寅, 畿沿有警, 時武備弛久, 遂詣舟師營, 議捍禦之方, 首肯擔繕兵之費, 水陸將卒, 莫不壯其忠義, 繡衣使亦有效忠盡孝之褒. 癸酉會圍, 用恩賜上庠, 時年八秩, 唱名之日, 入對便殿, 上特詢姓名·年紀, 超授通政階, 拜僉知中樞府事, 兼五衛將, 是公考也. 妣, 晉州河氏有源女也.]” 曹澤承(1930). 앞의 책. 10~11쪽. 『拙軒先生墓碣文』

4) 世譜에는 당시 禮曹判書 吳取善으로 되어 있으나 『拙軒集』 <拙軒先生墓碣文>에 따르면 旌孝碑文은 판서 鄭健朝가 지었다. 世譜의 기록은 착오로 보인다.

도록 하였다.⁵⁾

이상의 사실들로 보자면, 조택승의 가계는 아버지 조석창 이전부터 상당한 재력과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조택승과 조병후 대에까지 지역사회에서 지명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택승의 玄孫에 따르면, 할아버지였던 曹瑾煥 생전까지도 집에 식객들이 머물고 있을 정도로 부유했었다고 한다. 조택승의 가계도는 <부록1>에 따로 실었다.

2. 조택승과 조병후의 생애

아버지 조택승과 아들 조병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쏘

5) “증조모의 비석이 다 새겨져 배로 운반하던 중 풍랑을 만나 비석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선조들의 이름을 애석하게 여기며 목욕 재계하고 향을 피우며 밤낮으로 곡을 하여 하늘에 빌기를 한달여 만에 홀연히 신령한 사람이 꿈 속에 나타나 손으로 비석을 가리켜 찾으니 비석이 다시 나타나 묘를 세웠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칠종이 계해년(1863)에 旌門을 세워 표창하고 특별히 부역과 조세를 면해주었으며 판서 鄭健朝로 하여금 묘갈명을 짓도록 하였다.[嘗曾祖母墓碣刻訖，船運遭風墜海，惜其祖先名號，齋沐焚香，晝夜號哭，祝天至一朔，忽神人現夢指覓還出，樹墓。前事聞朝廷，哲宗癸亥命旌閭，特賜復戶，判書鄭健朝撰墓碣銘。]” 海南鄉校編(1964), 『海南君誌』 卷之七, 回想社, 19쪽.

“아, 나의 大宗 형님으로 돌아가신 판서 鄭健朝는 일찍이 공의 부친과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공의 부친에 대한 旌孝碑文과 墓誌를 지었고, 공도 또한 나와 약간의 사귀어 있었다. 공의 아들이 당대의 명문장가에게 글을 요청하지 않고 기필코 나에게 요구한 것은 대대로 교제한 우의가 있기 때문이니, 내가 銘文을 짓는 것도 마땅할 것이다.[噫，余之大宗兄故判書健朝，曾與公考有舊，而且有公考之旌孝碑文及墓誌；公亦與余有半面之交矣。胤君不求文於當世健筆，必求於余者，以有通家誼也，余亦宜銘。]” 『拙軒集』 曹澤承(1930), 앞의 책. 12~13쪽. 「拙軒先生墓碣文」

羅南道 海南郡 門內面 古棠里에 거주하면서 의술을 펼쳤다. 부자가 살았던 고당리 집터에는 새 건물이 들어선 상태이지만, 후손이 조병후가 말년에 약장을 놓고 기거하며 환자를 돌보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방은 집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옛 모습을 유지한 채 남아 있다.<그림1> ~ <그림 3> 참고)



<그림 1> 고당마을 입구 모습



<그림 2> 조택승 조병후의 집 터



<그림 3> 조병후가 말년에 약장을 놓고 기거했던 방 (현재 모습)

1) 조택승의 생애

조택승의 본관은 昌寧, 字는 大安, 號는 拙軒이다.⁶⁾ 그는 구한말인 1841년(憲宗 7) 9월 13일에 태어났으며 1907년(隆熙 1) 2월 2일에 67세의 나이로 졸하였다. 그의 품성에 대해서는 그의 문집인 『拙軒集』의 「拙軒先生墓碣文」에 자세하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은 憲宗 신축년(1841) 9월 13일에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자질을 지녀 일찍부터 부친 진사공의 의리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아버이를 섬기는 도리는 오직 정성과 효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자신의 몸가짐은 소탈하고 고상했고, 본성은 바르고 곧았다. 외물의 유혹에 지조를 변치 않고, 『시경』·『서경』 등의 옛 경전만 좋아하였다. 또 시문을 잘 지었지만 자주 시를 읊어 마음을 의탁하는 것도 즐겨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를 수습한 것이 겨우 2권뿐이었다. 일찍이 계유년(1873, 고종10, 33세) 式年試에 부친의 공훈으로 시험 없이 진사에 합격하니 마을에서 ‘정성과 효성이 더할 나위 없이 지극하니 옛날에 있었던 얼음속의 잉어와 눈발의 죽순이 어찌 아름답음을 독차지하겠는가.’ 하면서 칭찬하였다. 평소 대중을 구제하고 타인을 급히 여기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만년에는 의학서적으로 자신의 삶을 즐겨 정밀히 연구하고 깊이 이해하였다. 시술에 효험이 항상 있었지만, 또한 스스로 명의로 자처하지 않았다. 고종 임인년(1902, 62세) 惠民院 主事に 제수되어 벼들이 축하하고 자손들이 축수의 찬을 올렸다. 고종 황제 정미년(1907) 2월 2일에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67세이다. 海南郡 서편의 花源 山水洞 마을 북쪽에 있는 어머니 묘소 아래 任坐丙向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첫 아내는 金海 김씨로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두 번째 아내는 김해 김씨 銀億의 따님이다. 공의 형제는 넷인데, 공은 셋째이다. 아들은 하나로 秉侯이고, 손자는 둘로 瑾煥과 瑩煥이며, 나머지는 어려서 다 기록하지는 않는다.⁷⁾

6) “公諱澤承, 貫昌寧, 字大安, 號拙軒.” 曹澤承(1930). 앞의 책. 9쪽. 「拙軒先生墓碣文」

7) “公以憲宗辛丑九月十三日生. 生有異質, 早服進士公義方之誨, 事親之道, 維誠維孝. 持己也, 簡雅; 率性也, 正直. 不以外誘移其操持, 但嗜好詩書, 而又工於詞章, 時時諷詠以寓意, 亦不屑焉. 故所集, 僅二卷. 嘗於癸酉式, 爲親撰

기록에 따르면, 그는 충과孝를 중요하게 여겼던 부친 曹錫昌으로부터 학문적 소양을 물려받아 유학 경전을 읽으며 학문에 정진하였으며 시문에 뛰어났다. 말년에 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고 환자들을 치료했던 것은, 이를 통해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변에서는 그의 시문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자주 시를 짓지는 않았고, 해민원 주사에 제수될 정도로 의술이 고명해졌으나 정작 자신은 명의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는 그가 스스로 호를 拙軒이라고 지은 것과 관계가 있다. 그는 재주가 없고 서툰 상태[拙]를 좌우명으로 삼으며 살았다. 좌우명에 대한 그의 생각은 『拙軒集』 自序에 잘 드러나 있다. 그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 인내라는 것은 不仁한 자에게 인자함을 베푸는 것이고, 졸렬함이라는 것은 교묘하지 않다는 말이다. 太公이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 하였다. 文公(朱子)이 “고을에 살면서 쟁송을 경계하라. 쟁송하면 중국에는 흉하게 된다.” 하고, 또 “졸렬함을 지키는 것은 능력에 해당한다.” 하였다. 인내한 뒤에 졸렬할 수 있고, 졸렬한 뒤에 인내할 수 있다. 학문의 힘으로 확충하여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어찌 능력에 해당할 수 있겠는가. 나는 감히 함부로 옛 사람에게 비길 수 없으니, 어찌 제대로 해낸다고 하겠는가. 어릴 때부터 옛 성현의 글을 배우고 옛 성현의 법도를 준수하여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변화시키고자 하고 분노를 참아 졸렬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堂 이름을 ‘省忍’이라고 하고 軒 이름을 ‘拙’한 글자로 하니, 목전의 경계로 삼을 뿐만 아니라 후손의 경계로도 삼는다.⁸⁾

進士第, 鄉稱誠孝之至矣盡矣, 冰鯉雪筍, 豈專美於古哉? 平素以濟衆急人爲己任, 晚以醫書自娛, 精究濛解, 試之無不應, 亦不以自命. 上皇壬寅, 拜惠民院主事, 知舊貢賀, 子孫獻壽. 當寧丁未二月初二日卒, 享年六十七. 葬于海南郡西花源山水洞村北妣墓下壬坐之原. 初娶, 配金海金氏, 無子而歿; 再娶, 配金海金氏銀億女也. 公之鴈行有四, 公, 其三也. 子一, 秉侯; 孫二, 瑾煥·瑩煥, 餘幼, 不能盡記焉.” 曹澤承(1930). 앞의 책. 11~12쪽. 『拙軒先生墓碣文』

8) “噫, 忍者, 仁於不仁之謂也; 拙者, 不巧之謂也. 太公曰: ‘非人不忍, 不忍非人.’ 文公曰: ‘居鄉戒爭訟, 訟則終凶.’ 又曰: ‘守拙當能.’ 忍而後能拙, 拙而

그는 自序 첫머리에서 옛사람들은 모두 경계하는 글을 지어 마음을 다스렸다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는 좌우명이 인내[忍]와 졸렬함[拙]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맺고 있다. 그의 글 속에는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낙향한 뒤에 지역이라는 틀 안에서 활동해온 가문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 있으며, 현실 속에서 일순간의 감정을 인내하고 졸렬한 듯 가장하여 사는 것이 나를 지키고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국권이 기울고 있었던 구한말이라는 시대적인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조택승이 활동하였던 해남지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조택승의 畫像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견된 畫像에는 조택승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다.(〈그림 4〉 참조) 畫像에는 조택승의 앉은 모습 전체가 담겨 있으며, 왼쪽 뒤쪽으로 책상과 책, 문방구, 그리고 약첩으로 보이는 종이가 그려져 있고 조택승의 앞에는 작은 소반에 다과가 담겨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은하⁹⁾는 “조택승 초상화의 양식은 19세기 조선 초상화의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안면은 전체적으로 가는 선으로 육리문을 표현하고 눈 두덩와 법령 등에는 선염을 통해 음영을 주는 18세기 조선 초상화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정면관과 두 손의 노출, 배경의 기물 표현 등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유행한 초상화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배경의 기물들은 한국회화의 특징인 다양한 시점과 크기의 방식으로 그려졌는데, 이는 조선말기 책가도, 초상화에 보이는 기물

後能忍，非學力擴充而處變者，烏乎其能哉？余不敢妄擬於古人，而豈曰能之？自幼少，學古聖書，遵古聖法，欲變愚爲智，欲忍忿爲拙。故堂名‘省忍’，而軒銘，一‘拙’字，非徒爲目前之警，抑將爲後昆之戒云爾。” 曹澤承(1930). 앞의 책. 7쪽. 『拙軒自序』

9) 현재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본고의 이은하 선생 관련 인용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의뢰한 조택승 화상에 대한 감정 및 평가에 의거함.

표현 방법과 연관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화상에는 왼쪽 상단과 오른쪽 상단에 글이 적혀 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글은 문집에 기록된 『拙軒先生畫像贊』과 같은 글이다. 『拙軒先生畫像贊』에 부연된 조병후의 시에 “甲午孟春, 不肖子秉侯, 謹書.”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1894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상단에는 그림을 그린 최병육의 글이 적혀져 있어 그림을 그린 정황을 보여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拙軒 선생 曹澤承은 본관이 昌寧이고 字가 大安이며 堂名은 省忍이다. 辛丑年(1841) 9월 13일 戌時에 태어나셨고, 壬寅年(1902)에 天恩을 입어 惠民院主事に 오르셨으며, 丁未年(1907) 2월 초2일 戌時에 돌아가셨다. 부친을 위하여 小科를 하여 고을에서는 ‘破天荒’이라 칭하였고, 민중들을 구제하여 미로를 개척하였으며, 마음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구하는 것을 긴급하게 하는 데 두셨다. 藝에서 노니시어 青春 시절 재상의 집을 출입하였고, 詞에 능하시어 벼슬하지 않고 산림 사이에서 편히 지내셨다. 丹青으로는 이루 다 그려낼 수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형용할 수 있으리오. 달빛처럼 밝게 빛나며, 가을 물처럼 맑다네.

甲午年 3월 19일 京城 崔丙六 石痴가 그림을 모사하다.

丁未年 가을 重陽節에 관직의 관복입은 모습으로 崔丙六이 고쳐서 그린다.¹⁰⁾

글을 통해 이 그림이 1894년 처음 그려지고, 이후 1907년 조택승 사후에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은하는 초본에는 일반 사대부 복식으로 그려졌으나 1902년 조택승이 해민원주사로 신분이 이동됨에 따라 의원의 관직으로 복장이 수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집에

10) “拙軒先生曹澤承, 貫昌寧, 字大安, 堂名省忍. 辛丑九月十三日戌時生, 壬寅蒙 天恩, 陞惠民院主事, 丁未二月初二日戌時卒. 爲親而闢小科, 鄉稱破天荒, 濟衆而開迷途, 心存急人難, 遊於藝, 青春出入宰相之門, 工於詞, 白首偃蹇山林之間. 丹青莫狀, 孰形心曲, 山月皎潔, 秋水澄澈. 甲午孟春旬九日, 京城崔丙六石痴摹寫. 丁未菊秋重陽, 官職冠服, 崔丙六改摹.”

화가들을 비롯한 식객들이 머물고 있었다는 후손의 증언으로 유추해 보면 최병육은 조택승의 식객 가운데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졸현 뒤편의 책상 위에는 『拙軒要訣』이라는 책이 눈에 띈다. 그의 말년의 행적, 해민원주사로의 신분이동, 그 이후의 그림 수정, 책 옆에 약첩으로 생각되는 종이들을 고려할 때 이 책은 의학과 관련된 그의 저술일 것으로 보인다.<그림 5>참조) 그러나 현재는 그 실체를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림 4> 拙軒先生畫像



<그림 5> 『拙軒要訣』

2) 조병후의 생애

조택승의 아들 조병후의 호가 ‘行痴’라는 점을 보면, 그 역시 인내와 줄렬함을 소중하게 생각한 아버지에게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병후의 字는 子明, 號는 行癡로, 1869년(高宗 6) 5월 19일에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堂 이름을 餅城閣으로 짓고, 回春閣이라는 藥舖를 직접 운영하면서¹¹⁾ 아버지의 의술을 물려받아 이를 더욱 정미하게 연구하였다. 조병후 역시 자신의 시문을 『行癡集』이라는 문집에 남겼으며, 슬하에 瑾煥, 瑩煥 두 아들을 두었다.¹²⁾ 1944년 11월 11일 永眠하였다.¹³⁾ 조병후에 관해서는 鄭汝丞이 지은 『行癡集』 跋文에 자세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넉넉하고도 위대하구나, 曹行癡 어른의 영민하고 지혜로움이여. 어려서는 공자·맹자 등을 읽어 유학이 추구하는 도리의 핵심을 취하고, 성장해서는 軒轅과 岐伯의 기술을 배워 의학에 담긴 이치의 오묘함을 발휘하였다. 이는 모두 그 부친 拙軒公 집안에서 전수한 심법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연원이 있는 것이다. 대대로 의리를 계승하고 오로지 어버이 섬김에 힘을 쏟았다. 어버이의 뜻을 따르고 色養한 것은 예전 성인께서 말씀하신 養志에 거의 가까웠다. 변화한 시가지에 가까이 가지 않고 자연 속에 발걸음을 맡겨 소요하면서 유유자적했다. 간혹 시내와 산에 심취하여 시문으로 표출한 것이 대략 3편인데, 성정의 발로가 아님이 없었으니, 이치에 주안점이 있는 말씀은 후생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구절이 담박하고 의태가 고상하니, 그 본심의 맑고 조화로우며 편안하고 고요함을 미루어 알 수 있다.¹⁴⁾

11) “現今先生氏曹, 啣秉侯, 貫昌寧, 字子明, 號行癡. 又樾樓主人, 堂名餅城閣, 藥舖曰回春閣.” 曹秉侯(1929), 『行癡集』, 崔承學方, p178. 「行癡系要」,

12) “公之雁行有四公, 其三也子一秉侯, 孫二瑾煥瑩煥.” 曹澤承(1930). 앞의 책. 12쪽. 「拙軒先生墓碣文」

13) “秉侯己巳生, 甲申十一月十一日卒.” 昌寧曹氏正言公派世譜編纂委員會編(1992), 『昌寧曹氏正言公派世譜(全)』, 瑞進出版社, 1082쪽.

조병후 역시 유학에 전념하면서 의학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는 글에서도 밝혀져 있듯이 부친인 조택승의 영향 때문이었다. 조병후는 생전에 아버지와 자신의 문집을 『拙軒集』과 『行癡集』으로 간행했을 뿐 아니라, 2대에 걸친 의학지식을 간추려 『傷寒經驗方要撮』을 간행하여 이들 부자를 세상에 드러냈다.(<그림 6>, <그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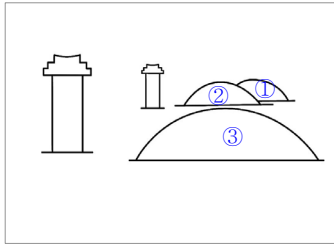


<그림 6>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拙軒集』과 『行癡集』 合本書¹⁵⁾

조택승과 조병후는 기록처럼 현재 化源 山水洞에 안장되어 있다. (<그림 7>~<그림 9> 참조)

14) “優哉偉哉, 曹公行癡翁之穎慧也. 幼而讀孔孟之書, 領畧儒道之綱要; 長而學軒岐之術, 發揮醫理之邃妙. 此, 儘自先大人拙軒公家塾授受心法, 有自來矣. 世襲義方, 專力事親, 順志色養者, 庶幾乎先聖之養志. 而不近城市, 托跡林泉, 逍遙自適. 或心醉溪山, 發爲文詞者, 畧三篇, 而莫非性情之發, 理勝之言, 足可爲後生之矜式. 而且句語澹泊, 意態閒雅, 其素心之清和寧靜, 推可知矣.” 曹秉侯(1929), 앞의 책, 174쪽. 『行癡先生集跋』

15)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 우촌古3648-71-10.



<그림 7> 조택승과 조병후의 묘



<그림 8> 조택승의 묘



<그림 9> 조병후의 묘

3. 조택승 조병후의 의약활동

1) 鄉醫로서의 醫術活動

조택승이 처음 의학을 시작한 계기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의 사상적 배경이 유학이었으며 자신의 의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을 보면, 그는 의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묘갈명에는 이러한 정황이

범중엄의 고사에 비유하여 묘사되어 있다.

銘曰

聞昔范文 禱相禱醫
業若殊路 均厥普施

恂恂拙翁 藹藹仁慈
有才不遇 嗟命之衰

國有天札 隻手濟之
澤及于人 惠加于時
彼伴食者 庶不愧而
何補余銘 萬口有碑

명문은 다음과 같다

옛날 범중엄은, 재상을 기원하고 명의를 기원했다니 하는 일이 다르지만, 시혜를 베푸는 것은 같기 때문이었지.

정성스런 졸옹, 인자함과 자애로움이 풍성했는데 재주가 뛰어나도 출세하지 못했으니, 아, 천명이 쇠하였구나.

국가에 역병이 돌면, 혈혈단신으로 구원하여 은택이 사람에게 미치고, 은혜가 시대에 더해졌네. 저 반식하는 자들이여, 부끄럽지 않은가. 어찌 나의 명문이 보탬이 되겠는가, 모든 이들의 입에 자자하니.¹⁶⁾

이들 부자는 의학을 익히고 의술을 베풀기는 하였지만 둘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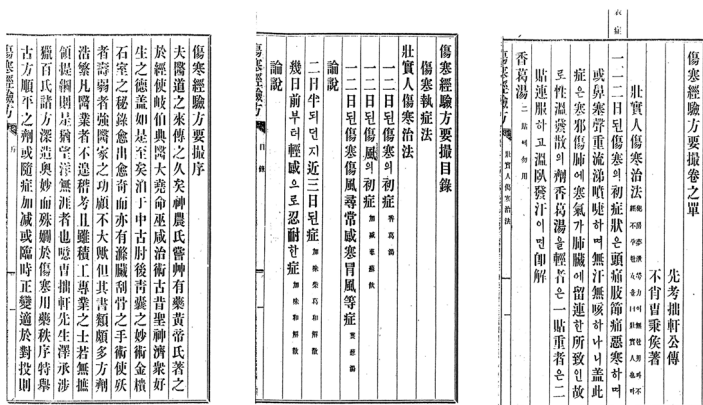
조택승은 의학을 공부하고 환자를 치료했으나 業醫로 활동하지는 않는데 반하여, 조병후는 직접 回春閣藥方을 운영하여 醫業에 종사하였던 것이다.¹⁷⁾ 어린 시절에 본 조병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증손녀에 따르면 그 일대에서 ‘조약방’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 후손에 따르면 조병후는 말년에 이르러 집 옆 작은 사랑채에 약장을 놓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돌봐주는 등 돌아가시기 전까지 의술을 펼쳤다고 한다.

16) 曹澤承(1930), 앞의 책, 13쪽. 「拙軒先生墓碣文」

17) 조병후가 의업을 하던 回春閣藥房은 옆 마을인 古坪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傷寒經驗方要撮』 刊記에는 “發行所 餅城閣(全南 海南郡 門內面 古棠里 八三番地), 發賣所 回春閣藥方(全南 海南郡 門內面 古坪里 三二番地)”이라고 되어 있다.

2) 의서의 편찬

두 부자의 의학경험이 담겨져 있는 『상한경험방요촬』은 조택승이 세상을 떠나고 십 수 년이 흐른 뒤인 1921년 즈음에 아들 병후에 의해 정리되었다. 刊記에 의하면 1933년 간행되었고¹⁸⁾ 跋文의 연대도 白馬年(庚午, 1930)으로 되어 있으나, 序文의 연대는 이보다 빠른 辛酉年(1921)으로 되어 있다.



<그림 10> 『傷寒經驗方要撮』

서문과 발문에는 조택승, 조병후 2대에 걸친 의학 전술 과정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다. 鄭汝丞은 序文에서 “拙軒 曹澤承 先生은 여러 의가들의 서적을 섭렵하여 깊고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傷寒에 더욱 뛰어났다. …… 그의 아들 秉侯는 아버지의 心法을 물려받아 정미

18) 이 책의 간기에는 發行所를 餅城閣으로, 發賣所를 回春閣藥方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全南 海南郡 門內面 古坪里 32番地에서 간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게 연구하여 깨우치고 활발히 변통하여 응용하였다.”¹⁹⁾라고 하였으며, 尹忠夏 또한 跋文에서 “내가 듣건대, 고 曹拙軒先生은 일성산 아래 은거하며 일찍이 孝行으로 이름을 날린 進士 石南公의 뜻을 받들면서 성현의 책을 읽고 의학을 연구하기를 좋아하였는데 그 오묘함을 꿰뚫으니 세상에서 大方家라고 칭하였다. 그는 상한 치료에 더욱 정밀하여 앞 사람이 밝히지 못한 것을 밝힌 바가 많았으며 그것을 시험하면 응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그의 아들 秉侯는 아버지가 말로 주고 마음으로 전한 것을 습득하여 이를 엮어서 차례를 짓고 풀어서 뜻이 통하게 하였다.”²⁰⁾라고 하였다.

현존하는지 확인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졸헌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서적 가운데 『拙軒要訣』이 있다.(<그림 5>참조) 앞에서 살펴본 졸헌의 화상에 등장하는 이 책은 그가 말년에 의학을 익히고 의술을 펼쳤다는 정황, 해민원주사로 임명되었다는 사실, 이에 따라 화상이 수정되었을 것이라는 추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의서일 가능성이 크다. 이 책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정식으로 간행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초고 상태나 유고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19) “…… 曹拙軒先生澤承, 涉獵百氏諸方, 深造奧妙而殊嫻於傷寒, …… 其胤君秉侯, 能受心法, 且精研而慧悟, 活變而應用, ……” 曹澤承, 曹秉侯(1933), 『傷寒經驗方要撮』, 餅城閣. 3~4쪽. 「序」

20) “余聞, 故曹拙軒先生, 隱居于日星山下, 早服孝行進士石南公之義方, 好讀聖賢書兼究醫學, 徹其妙奧, 世稱大方家, 而尤精於傷寒治法, 多有發前人所未發者, 試之無不應, 其胤君秉侯, 得其口授心傳, 編以次之, 飜以譯之者, ……” 曹澤承, 曹秉侯(1933), 앞의 책, 125~126쪽. 「傷寒經驗方要撮跋」

3) 의학적 사승관계

조택승의 의학이 조병후에게 이어졌다는 점에서 행치는 줄헌의 아들인 동시에 학술적으로는 제자이다. 그가 아버지의 의학을 이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문집과 의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 『상한경험방요찰』에서 행치는 “先考拙軒公傳 不肖曹秉侯著”라고 밝혔으며 책 본문 곳곳에서도 拙軒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신의 의학이 줄헌으로부터 연유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줄헌에게 의학을 전수받은 이는 아들 행치 이외에 한 명 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름은 손봉구(孫奉球)로 『줄헌집』 교정에 참여하여 문집에 이름이 남아 있다. 줄헌의 문집을 교정한 이들이 교정 끝낸 것을 기념하여 지은 시 가운데 “門生孫奉球”가 지은 시에는 줄헌의 의학지식을 추앙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盧醫翌世有先生
悟得青囊奧妙情
肘訣屬誰垂後繼
大方自是倍文明

門生孫奉球

노의 이후 세상에 선생이 계셨으니,
청낭의 오묘한 진리, 제대로 깨우치셨지.
주결을 누구에게 맡겨 후대에 계승하게 하셨는가
위대한 처방이 이로부터 세상의 문명생활을 더
하겠지.

제자 손봉구가 짓다²¹⁾

노의(盧醫)는 춘추시대 말기의 명의 진월인(秦越人) 편작(扁鵲)을 가리키며, 청낭(靑囊)은 화타(華陀)가 죽기 직전 자신의 신묘한 의술 내용을 불살랐다는 서적을 가리킨다. 주결(肘訣) 역시 소매 뒤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긴요한 처방을 이르는 것으로 모두 의학에서 자주 사

21) “盧醫翌世有先生，悟得靑囊奧妙情，肘訣屬誰垂後繼，大方自是倍文明。門生孫奉球。” 曹澤承(1930), 앞의 책, 250쪽. 「拙軒公集，校正訖日，唱和紀念」

용되는 단어들이다. 제자라고 밝힌 손봉구가 졸현의 의학을 찬송한 것은 그가 졸현으로부터 의학을 전수받은 자였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행치 이후로 그의 가계에서 졸현의 의학을 계승하였다는 이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까지 졸현의 의학이 계승되고 있다면 그것은 손봉구로 전해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졸현과 의학적으로 사승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손봉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요청된다.

맺음말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조택승과 조병후는 해남지방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昌寧曹氏 正言公派의 후손들이다. 조택승은 졸현이라는 호를 지어 평생 인내와 겸손을 좌우명으로 삼아 왔으며 깊은 학식과 의술을 드러내지 않고 은거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유학 지식을 토대로 시문을 지으며 살아가던 중 말년에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의학에 심취하여 의술을 배풀었다. 그의 醫名은 중앙에까지 알려져 말년에는 혜민원 주사에 제수되었다. 그의 시문은 그의 문집인 『졸현집』에 남아 있으며, 그의 모습은 그의 식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최병육에 의해 그려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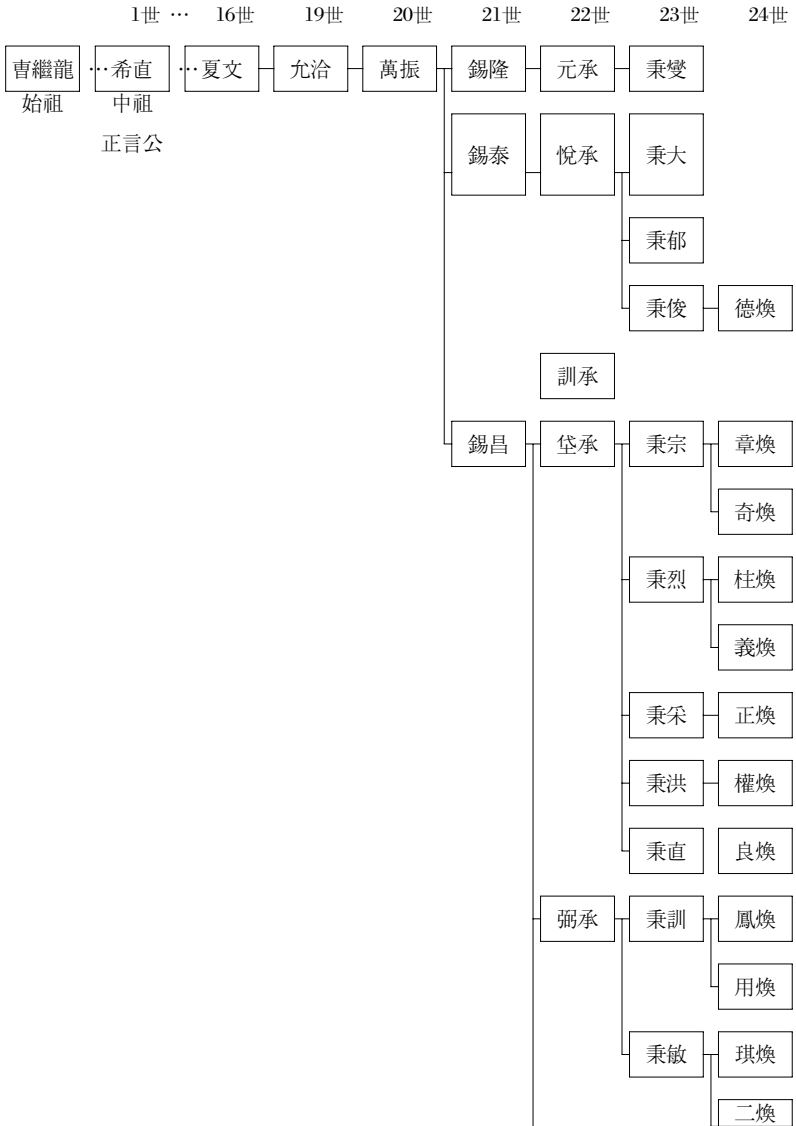
그의 의학지식은 아들 조병후에게 이어져 『상한경험방요촬』이라는 책으로 엮어졌으며, 그 내용은 기존의 상한 치료와 구별되는 것들로서 19세기 조선 한의학의 역동적인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조병후 이외에 손봉구 역시 그의 의술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보이며, 『상한경

협방요찰』 이외에 『拙軒要訣』이라는 의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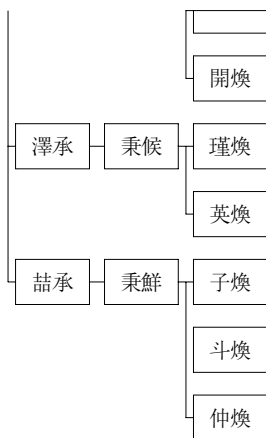
인물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료의 존재 여부일 것이다. 조선 시대 醫人들의 경우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구전된 이야기 외에 따로 사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가까운 19세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조택승 조병후 부자의 경우에는 이런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이들의 정확한 활동 장소, 활동 시기 뿐만 아니라 문집과 의서의 내용을 통해 그들의 활동 내력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東醫壽世保元』(1894)의 저자로서 사상의학을 창시하고 함경도에서 의술을 펼쳤던 이제마, 漢學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경상도 일대에 환자를 치료했던 이규준 등은 학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한다면 동시대 호남지방에서 활동했던 조택승의 발견은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던 이들 부자와 관련된 사료들이 추가로 발굴되어 『졸현요결』에 대한 단서 및 제자였던 손봉구의 행적이 드러난다면 전남 일대에 존재하였던 醫學 流派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19세기 의학지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부록〉 조택승 조병후 가계도 및 世譜의 기록²²⁾



22) 昌寧曹氏正言公派世譜編纂委員會. 『昌寧曹氏正言公派世譜(全)』. 瑞進出版社. 1992:1-21, 1077-1111.



澤承. 字大安, 號拙軒, 惠民院主事, 親至孝, 博通醫學, 世擬華編, 文詞章有詩, 集二卷傳行世. 辛丑生, 丁未二月二日卒. 墓花源水洞先山壬坐.

秉候²³⁾. 初名鎬文. 號行癡²⁴⁾. 大聖院議定赴士, 博通醫學, 名播遠近, 講集二卷刊行于. 己巳生, 甲申十一月十一日卒. 墓花源考墓下壬坐, 捕國閔丙撰碑石.

瑾煥. 初名瑾淳. 字驗格, 號癡軒. 戊子五月一日生, 壬辰三月十八日卒. 墓海南花源方下村後日星山中后, 坐.

榮煥. 初名瑩淳, 字省祐, 號. 癸丑二月二十一日生, 癸丑七月十三日卒. 墓海南門內面溫中東玉山山峰西坐有碣.

23) 秉候 : 昌寧曹氏正言公派世譜(全)에는 “秉虎”로 되어 있으나 誤記이므로 정정한다.

24) 癡 : 昌寧曹氏正言公派世譜(全)에는 “凝”로 되어 있으나 誤記이므로 정정한다.

【참고문헌】

- 오준호, 박상영, 김현구, 권오민(2012), 「조선후기 상한 연구의 일명 - 조
선후기 상한 연구서 『상한경험방요촬』의 구성과 내용」, 『한국한
의학연구원논문집』 18권1호, 25~34.
- 曹秉侯(1929), 『行癡集』, 崔承學方.
- 曹澤承(1930), 『拙軒集』, 餅城閣.
- 曹澤承, 曹秉侯(1933), 『傷寒經驗方要撮』, 餅城閣.
- 昌寧曹氏正言公派世譜編纂委員會編(1992), 『昌寧曹氏正言公派世譜(全)』,
瑞進出版社.
- 海南鄉校編(1964), 『海南君誌』 卷之七, 回想社.

Medical men in the late of the Joseon Dynasty-Joh, Taekseung & Joh, Byeong-hu's Life

Oh, Jun-ho·Park, Sang-Young*

This study is the research on Joh, Taek-seung and Joh, Byeong-hu, who were father and son, and both were active as Confucian herb doctors. This study consists of on-site survey and documentary research, through which it aims at organizing and presenting their deeds.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especially the 19th century, is marked as the era of high dynamism in the history of Oriental medicine. This period witnessed Lee, Je-ma(1836~1900)creating Sasang Typology, and Lee, Kyu-jun(1855~1923)examining the past medicine in a critical way through Buyang theory and suggesting a new method. In the same period, there was a Confucian herbal doctor named Joh, Taek-seung who exercised considerable influence in Haenam district.

Joh, Taek-seung was one of the descendants of Jeongeongong branch of the Johs of Changryeong family clan who had exercised their influence for

* Medical History and Literature Research Group,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 long time in Haenam district. Joh, Taek-seung had made patience and humility as his motto by naming himself 'Jolheon' as a pen name all his life; in addition, he lived near to dwelling in retirement without exposing his profound learning and medical practice.

Joh, Taek-seung lived writing poetry and prose on the basis of Confucian knowledge under the influence of his father. In his later years, he was infatuated with medicine and gave medical care to the public in an effort to carry out the role as an intellectual for a community. His reputation as a herbal doctor became known even to the central government, being appointed to a position 'Jusa' at Haeminwon(a relief organization for the poor and sick). His poetry remains in his anthology

『Jolheon Collection』 and his appearance drawn by Choi, Byung-yuk, who is believed to be a house-guest, is still handed down to this day.

His medical knowledge was succeeded by his son, Joh, Byeong-hu, to be compiled in a book titled 『Sanghangyeongheomyochal』, whose contents are distinct from the existing Sanghan medical treatment, showing that Joh, Taek-seung was taking part in the dynamic change of the 19 century Joseon Oriental medicine. Besides Joh, Byeong-hu, Sohn, Bong-gu was also believed to be handed Joh, Taek-seung's medical practice, and he seemed to compile the medical book titled 『Jolheonyogyeol』.

Key words : Prosopography, Joh, Taek-seung, Joh, Byeong-hu, 『Sanghangyeongheomyochal』, Jeonlanam-do, Haenam